

[사회]

번 만큼 돌려주고 하늘나라로 세상의 빛 된 '50억 사회환원'

40대 전업주부가 사별한 남편의 뜻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사회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책무)를 실천했다.

C(48)씨는 최근 50억원을 출연, 노인복지법인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을 설립했다. '권동식'(사진)은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이고, '아벤티노'는 그의 천주교 세례명이다.

권씨는 광주 하남산단에 타이어 부품업체인 '세모 엔지니어링'을 세워 20년 가까이 틈틈하게 꾸려온 기업인이다. '무역의 날' 수출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



을 돋고 싶다"며 "아직 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인 공부를 해볼 생각이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이 생기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처럼 듣는다"고 좋아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

광주 40대 주부, 사별한 남편 뜻 따라 복지법인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 설립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1억원 기부도

만 지난해 4월 간암 선고를 받고 8개월 뒤 사망하는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부인 C씨와 함께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던 그는 평소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

C씨는 남편이 숨지기 직전 회사를 처분했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인 50억원을 출연,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고, 나중에 실버타운을 지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자"는 남편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C씨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

을 선뜻 내놓았지만 C씨는 이 같은 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렸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 이유다.

C씨의 선행이 알려지게 된 것도 성당 신자들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다. C씨는 끝내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거부했다.

이달 초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C씨는 "나 역시 남편 없이 쓸쓸하게 늙어갈 텐데 재단이 훌륭하게 운영돼, 옛날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원성과금 차등 지급 갈등 재연

전교조 "반납 안 받으면 사회기부"

몸 속 금속물질 박힌

40대 남자 끝내 숨져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교조 등 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급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 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 한 번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반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사회 기금으로 헌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임의로 작성한 올해 개인별 성과급 격차는 차등 지급 비율 20%인 경우 최고 42만원, 30%인 경우 최고 64만원, 40%로 확대되면 최고 85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교원 성과금 개인별 차이가 최고 18만원이었던 데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몸 안에 공기총 탄환과 비슷한 금속물질이 박힌 채 의식불명에 빠졌던 40대 남자(본보 6월8일자 7면)가 끝내 숨졌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여수시 선원동에서 갑자기 쓰러진 김모(40·여수시 선원동)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오전 호흡 곤란 등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김씨의 몸 안에 있는 금속물질의 정확한 성분을 밝히기 위해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김씨의 목에는 당시 ▲너비 4.8 mm ▲길이 1.2~1.4cm의 금속물질이 1번 목등뼈 부위(頸椎部)를 관통한 뒤 박혀 있었다.

이들은 "뱀사골 인근에서는 연간 10여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가장 가까운 노고단·연하천 대피소와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그리고 성과금 분쟁이 예상된다.

통일 염원하며 달린다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서구 '5·18 기념공원' 구간에서 열린 '6·15 통일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시민·학생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학생 글짓기·개미 장터 등 다양한 '6·15 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

"뱀사골 대피소 폐쇄 안된다"

전북 산악연맹 회원 집회

'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회원 30여 명은 17일 노고단에서 '뱀사골 대피소 폐쇄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뱀사골 인근에서는 연간 10여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가장 가까운 노고단·연하천 대피소와

각각 6.5km·4.2km 떨어져 있어 사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며 "산 악인들의 추악과 역사가 담겨있는 곳인 만큼 환경 보전 대책을 강화한 뒤 예전처럼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5년 문을 연 뱀사골 대피소(165m²)는 연간 5천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그러나 무분별한 취사 행위 등으로 제곡 오염이 심화되자 지난 3월부터 예약을 전면 중단. 현재는 대피 공간만을 남겨 두고 폐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뱀사골 옛 취사장 건물(49m²)을 폭우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연하천 대피소 수용 규모를 70명(현 40명)으로 늘리면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입원 치료 치매환자

6일째 실종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치매 환자가 실종 6일째 소식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동구 운림동 C병원에 입원 중인 박모(69·경기도 용인)씨가 실종됐다.

박씨는 이날 낮 12시께 아들과 함께 외출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승강기 앞에서 혼자 진 뒤 사라졌다. 경찰은 방법론찰대원 등을 투입, 병원 인근 야간·야간 철거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실종 사실을 6시간 뒤늦게 신고해 읊에 따라 조기 목격자 등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면회 시간인 오후 5시까지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와야 하는데 갑자기 시간을 앞당겨 되돌아 오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실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가 다소 늦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삼성빌딩 임대

층/별/안/내

- 7F 사무실
- 6F 148평 (분양가능) 복·원룸 및 사무실 험원
- 5F 148평 (분양가능) 복·원룸 및 사무실 험원
- 4F 148평 (분양가능) 복·원룸 및 사무실 험원
- 3F 148평 (분양가능) 복·원룸 및 사무실 험원
- 2F 남양알로에
- 1F LG텔레콤 (임대 33평) 골프웨어

건물위치: 북구 우산동 258-3(말바우사거리)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공인증개사

전국수석 배출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비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광주고시학원

이론이 아닌 실무에 실용적으로 적용!! 2개월 과정으로 6개월 효과

포토샵(Photoshop)

코렐드로우(CorelDRAW)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실무 반모집

현, 하나로통신 및 협력회사 디자인너팀 직강!!

교육시간 : 오후 3:30 ~ 5:30
야간 7:30 ~ 9:30

교육기간 : 7월 2일 ~ 8월 31일

교육과정(8주)
• 엑셀, 파워포인트 - 2주과정
• 포토샵, 일러스트, 코렐드로우 - 6주과정

='07년 합격이 가장 용이한 전남 교육행정직을 잡아라!=

7·9 금 공무원 특강

속보 =전남 9급 교육행정직을 하반기 시행=

①채용인원: ○○○명(액50명) 이상 될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②※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 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였다.*

=전남 일반행정직 10월13일 시험 시행=

7급 21명·9급 154명(7월초 확정공고)

=無等은 선제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考试의 名門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김영선생 대학편입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개강: 1차-6월 25일, 2차-7월 2일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김영선생 대학편입

www.kimyoung.co.kr

고등학교(서울) 178명 학생, 고려대학교(서울) 100명 학생, 서강대 104명 학생, 성균관대 270명 학생, 중앙대 282명 학생, 한국외대 295명 학생, 한양대 365명 학생, 동국대학교 124명 학생, 연세대학교 137명 학생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 중 137명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